

프랑스지배기(1806~15) 남부이탈리아 반봉건개혁의 성격*

정 문 수**

The character of the Anti-Feudal Reform in Southern Italy(1806~15)

Jeong Moon Soo

I

남부이탈리아에서 봉건제가 정식으로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제도적인 정비와 토지개혁이 진행된 것은 프랑스지배기(1806~15)의 일이었다. 그런데 프랑스지배기에 관한 연구는 이탈리아통일운동(Risorgimento)¹⁾을 보는 연구시각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활성화되었다.

리소르지멘토 연구는 크게 리소르지멘토를 부르조아혁명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정통론과 부르조아인지 귀족인지 구별이 불가능한 중간신분(ceti medi)의 정치세력화과정으로 보는 수정론으로 대비된다. 필자는 정통론과 수정론의 주장이 프랑스지배기에 골격이 잡힌 반봉건개혁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토지부르조아지(galantuomini)의 사회·경제적 부상 및 정치세력화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프랑스지배기(1806~15) 이전 남부이탈리아의 토지부르조아지는 토지사유화 투쟁을 통해, 한편으로는 영주의 봉건적 권리에 저항하고 또 한편으로는 농민의 用益權(usi civici)을 제한하면서 지방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가운데 서론과 결론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부교수

1) 로돌리코(N. Rodolico)와 같은 역사가는 리소르지멘토를 고대 로마의 민족적 영광을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민족 재흥(부흥)운동”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한다. 이와는 약간 다르지만 영어권 역사가들 가운데 일부는 리소르지멘토를 단순히 “부활”(resurgence)로 직역하고, 민족 부활에 대한 이탈리아인의 열망이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조차도 부정한다. 이들은 이탈리아통일을 1859~60년의 전쟁과 외교의 우연한 산물로 본다(D. Beales, *The Risorgimento and the Unification of Italy* (London and New York, 1981)). 반면 칸델로로(G. Candeloro)와 같은 이는 리소르지멘토를 “이탈리아통일운동”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리소르지멘토가 단순한 민족의 부흥이 아니라 부르조아적이면서도 자본주의적인 근대국가의 형성을 지향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리소르지멘토라는 용어는 이탈리아의 국민적 통일국가의 형성을 가져다 준 운동을 지칭하는 말이다”(G. Candeloro, *Storia dell'Italia moderna: Le origini del Risorgimento*, vol. I (Milano, Feltrinelli, 1989), p.10). 필자의 경우는 칸델로로의 견해를 따랐다.

세계의 실력자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범위가 지방세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토지부르조아지는 프랑스지배기에 실현된 반봉건개혁을 통해 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유화를 보장받고, 토지분배와 교회토지 매입을 통해 토지소유를 더욱 증식시켰다. 더욱이 이들은 사법·조세·행정제도 근대화의 산물인 '행정군주정' 체제하에서 지방 및 중앙관료로 등용되었고 이때부터 이들의 활동범위가 지방을 넘어서서 전국에 걸쳐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비로소 정치세력화할 수 있었다.

토지부르조아지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최초의 시도가 1820년 나폴리혁명인데, 이들은 혁명 주도 단체인 카르보네리아와 이후 소집된 의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입헌혁명 이후 토지부르조아지는 사적 소유권이 확립된 토지소유자란 측면에서 귀족과 거의 동질화되어 갔던 반면 농민의 토지분배 내지 용익권 요구를 탄압하였다. 입헌혁명 이후 토지부르조아지와 귀족으로 구성된 토지소유자가 통일운동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농민은 통일주체와 통일에 대해 불신하게 된다. 달리 표현하면, 프랑스지배기의 반봉건개혁 성격이 이후 이탈리아통일운동의 전개를 조건지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남부문제의 원인이 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남부이탈리아 토지부르조아지의 사회·경제적 부상, 정치세력화, 귀족과의 동질화에 이르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농민과의 갈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II

이탈리아통일운동은 오스트리아로 대표되는 외세로부터의 독립과 내부적으로는 분열된 지역들의 통일을 목표로 전진과 후퇴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80년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것은 프랑스혁명, 나폴레옹시대, 비인체제, 7월혁명, 2월혁명, 나폴레옹 3세시대 등 유럽 역사의 조류에 따라 부침을 겪으면서 결국 사르데냐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입헌군주정으로 귀결되었다.

통일 직후부터 1차대전 발발까지의 이탈리아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민족적·애국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²⁾ 이러한 연구시각은 카부르(C. Cavour), 마찌니(G. Mazzini), 가리발디(G. Garibaldi)를 상호 협력관계의 통일 영웅으로 파악하고 이탈리아왕국 최초의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통일의 구심점이 된 聖君으로 높이 평가하였다.³⁾ 또한 연구자들

2) 리소르지멘토의 역사서술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은 W. Maturi, *Interpretazioni del Risorgimento*, (Torino, Einaudi, 1962); L. Bulferetti, "Il Risorgimento nella storiografia contemporanea", autori vari, *Nuove Questioni di Storia dell'Unità Italia* (Milano, Marzorati, 1990, 이하 N.Q.로 표기함), vol. 1, pp.1~38; L. Riall, *The Italian Risorgimento: State, Society and National Unific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pp.1~10; 北原 敦, <リソルジメントと統一國家の成立>《岩波講座 世界歴史》20, 1971, pp.155~163; 정문수, <이탈리아통일운동을 보는 하나의 시각—부르조아 자본주의 변혁론—>《부대사학》14 (1990), pp.173~178 참조. 민족적·애국적 관점의 연구와 사료편집에 대한 논의는 L. Marchetti, "Bibliografia generale del Risorgimento", in N.Q., vol. 1, pp.729~759; H. Hearder, *Italy in the Age of the Risorgimento 1790-1870* (London, Longman, 1986), pp.1~14, 295~305; 그리고 D. Beales, *op. cit.*, pp.1~19 참조.

3) 리소르지멘토기의 대표적인 예술가인 베르디(G. Verdi, 1813~1901)는 40세가 되기 전에 국제적 명성을 얻었지만 리소르지멘토를 지지하는 이탈리아인들이 "베르디 만세"(Viva Verdi)를 외쳤던 것은 그의 인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이탈리아의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Vittorio Emanuele Re d'Italia)의 첫글자들에서 따

은 리소르지멘토를 독자적인 부흥운동으로 해석하여, 독립전쟁, 외교사, 사보야왕조사에 초점을 두었고, 비밀결사, 혁명 등의 사건도 오로지 애국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반외세의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민족적 일체감이 사실 이상으로 강조되었던 것이다.⁴⁾ 이 시기의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통일운동은 이탈리아인들의 애국적인 민족운동이었고 유럽의 역사 조류와는 무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자 연구방향은 한층 복잡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통일국가 성립 당시에 발생한 국가권력과 민중들간의 괴리가 결국 파시즘이라는 형태로 심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반파시즘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애국적·민족적 관점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시각이 대두하게 되었다. 크로체(B. Croce)는 리소르지멘토에 대해 구체적인 저서를 남기지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국가사와 문화사를 종합하려는 윤리적 정치사(storia etico politica)의 방법론과 파시즘에 대항하여 역사에서 자유의 발전을 강조한 자유주의론을 통하여 이 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사상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⁵⁾ 크로체의 연장선상에 있던 역사가인 오모데오(A. Omodeo)는 일련의 개별 연구를 통하여 파시즘체제하에서 진행된 자유주의 사학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⁶⁾ 종래의 관점과 대비되는 점은 우선 리소르지멘토사를 일국사의 시야에서 벗어나 19세기 유럽 자유주의운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이다. 두번째 특징은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군국주의, 가톨릭시즘 등의 세계관이 대립하는 가운데 리소르지멘토가 카부르로 상징되는 온건·자유주의적 경향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파시즘의 붕괴와 광범한 민중적 저항운동의 경험으로 인해 역사연구 분야에서도 사회구조·계급투쟁·민중운동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람시(A. Gramsci)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리소르지멘토를 부르조아변혁의 과정으로 파악하였고, 그 위에서 부르조아변혁의 규모와 형태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람시는 이 분석에서 “자코뱅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리소르지멘토를 자코뱅주의가 결여된 부르조아변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자코뱅주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혁명적 결합’, 즉 혁명적 부르조아지와 농민대중의 결합에 있었다.

그람시는 부르조아변혁이 민중적, 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변혁 주체와 변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중운동 사이에 동맹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리소르지멘토는 이 동맹관계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부르조아변혁이 민중적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지 못했다고 지적

왔다는 데에도 기인했다. P. Petit, *Verdi* (Paris, Solfege, 1986), p.91.

4) 리소르지멘토의 사전적 의미는 ‘재생’ 내지 ‘부활’인데 이 용어는 르네상스의 의미가 그러하듯이 바로 앞 시기의 부정, 즉 1815년 이후 성립한 복고정부뿐만 아니라 프랑스지배기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애국적 관점에서는 프랑스지배기가 이탈리아통일에 끼친 영향이 전적으로 배제되었고 프랑스지배기에 관한 연구도 나오지 않았다.

5) 크로체의 역사서술의 목표는 이탈리아 자유주의의 성과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는 역사적 右派(Destra storica)가 정치적, 재정적,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차대전까지 자유주의적 의회제도를 유지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유주의 정치체제를 파괴한 것도 파시즘을 가능하게 한 것도 자유 이탈리아 정부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그는 자유주의와 파시즘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파시즘을 자유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보았던 것이다. Riall, *op. cit.*, p.2.

6) 그의 논문들은 戰後에 *Opera politica del conte di Cavour* (Firenze, Vallecchi, 1959); *Difesa del Risorgimento* (Torino, Einaudi, 1955)로 출간되었다.

하였다. 그에 의하면 온건·자유주의파의 부르조아지가 귀족과 동맹을 맺어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였던 반면 급진파를 대표하는 중·소부르조아지는 특히 농민과 동맹을 맺으려는 정치 프로그램을 갖지 않았고, 그 때문에 급진파에 대한 온건파의 헤게모니가 확립되었으며,⁸⁾ 리소르지멘토의 방향이 온건·자유주의적 해결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⁹⁾ 그에 의하면 리소르지멘토의 타협적인 결과는 정치적 불안과 무질서로 특징되는 이탈리아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영속적인 불화로 나타난다. 그는 파시즘을 이런 상황의 산물로 보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람시는 리소르지멘토에서 자코뱅주의가 성립하지 않았던 원인을 이탈리아 부르조아지의 사회적 성격 이외에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의 정치상황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그람시의 관점은 이후의 리소르지멘토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개별 연구에 의하여 심화되었다. 먼저, 1950년대를 전후하여 1796~99년의 자코비노혁명기¹⁰⁾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이들 연구는 프랑스혁명과 리소르지멘토의 관련성을 추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 연구에 의해 자코비노혁명기를 리소르지멘토의 출발로 보는 견해가 정설화되었다.¹⁰⁾

그람시의 시각에 입각한 연구는 부르조아지, 특히 공화주의자들에 대한 분석으로 심화되었다. 기존의 연구가 카부르를 중심으로 하는 입헌군주주의자들에게 집중되었지만, 1950년대 이후는 공화주의자들의 사상, 조직, 운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혁명적 부르조아지와 민중간의 동맹의 결여가 보다 심도있게 고찰되었다.

한편 그람시가 부르조아혁명 성공의 척도로 삼았던 “자코뱅주의” 개념에 대한 로메오(R. Romeo)의 엄중한 비판은 정치사 내지 운동사 중심으로 진행된 리소르지멘토사 연구를 경제사의 측면에서 연구·검토하도록 자극하였다.¹¹⁾ 로메오는 자코뱅주의가 부르조아혁명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부르조아사회, 즉 자본주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람시의 관점을 확대, 심화시켜나갔던 전후의 학자들은 리소르지멘토의 부르조아 지도자들이 농민의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1861년에 건설된 왕국의 경제정책 또한 그러한 관심의 결여를 보여준다고 논증하였다. 이에 대해 로메오는 농업부분에서 자본축적의 기반 없이는 이탈리아가

7) A. Gramsci, *Il Risorgimento* (Torino, Riuniti, 1977), p.87.

8) 그람시는 자코비노(jacobino, 이탈리아 자코뱅), 즉 급진파 부르조아지의 역할 없이 자코뱅주의의 결여-민족 독립전쟁이나 개혁을 통해 근대화한 경우를 수동혁명(rivoluzione passiva)이라 명명하였다. 이 용어는 일찍이 쿠오코(V. Cuoco)가 1799년 나폴리 자코비노혁명 당시 부르조아지와 민중간의 괴리, 수도와 지방간의 괴리를 상징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다(V. Cuoco, *Saggio storico sulla rivoluzione napoletana del 1799*, a cura di F. Nicolini (Bari, Laterza, 1913)). 그람시는 이 용어를 자코뱅주의의 결여와 동일시하였으며 이탈리아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하였다. *Ibid.*, p.118.

9) 자코비노혁명이란 이탈리아의 자코뱅혁명을 의미한다. 이들 자코비노는 프랑스의 자코뱅이 그러했던 것처럼 루소(J.J. 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 일반의지론에 심취하였고, 1793년 프랑스헌법을 구체적인 정치모델로 삼았다. Candeloro, *Storia del moderna*, vol. I, p.191; G. Procacci, *Storia degli italiani* (Roma-Bari, Laterza, 1980), p.306. 루소 사상이 프랑스혁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서정복, <프랑스혁명의 知性史的 考察 -사회계약론과 일반의지론을 중심으로-> 于耕 李敏鎬教授 정년기념논문찬행위원회, 《유럽史의 構造와 轉換》(느티나무, 1993), pp.519~536 참조.

10) A. Saitta, “Il robspierismo di F. Buonarroti e le premesse dell’Unit italiana”, *Belfagor*, Vol. X (1955); A. Galante Garrone, “Primo giacobinismo piemontese”, *Il Ponte*, No.7 (1949).

11) R. Romeo, *Il Risorgimento e capitalism* (Bari, Laterza, 1959). 이 책에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두편의 논문, “La storiografia politica marxista nel secondo dopoguerra”와 “Problemi dello sviluppo capitalistico in Italia dal 1861 all 1887”이 재수록되어 있다.

산업화되고 번영된 국가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었다고 논박하였다. 그는 신정부가 농촌으로부터 세입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중과세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여, 리소르지멘토의 온건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로메오의 연구는 주로 통일 이후의 산업화에 초점을 두고, 자본주의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공업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중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리소르지멘토期 농촌의 상태에 집중시켰다. 부연하자면, 그람시가 “자꼬뱅주의의 결여”라 했던 것은 혁명적 부르조아지가 농민과 동맹을 맺기 위한 정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 것인데, 로메오는 “자꼬뱅주의”를 농민에 의한 토지혁명, 즉 사회혁명으로 이해하여 그람시의 주장처럼 리소르지멘토의 기간 중에 농민적 소토지소유화가 광범하게 실현되었다면 오히려 리소르지멘토 이후의 공업화, 자본주의화는 지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를 요약하면, 통일국가 성립 이후의 산업화, 자본주의화의 과정이 북부의 산업 부르조아지에 의한 남부 농민의 희생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또한 그람시의 견해를 지지하였던 사람들의 견해와는 상반되게 오히려 리소르지멘토期에 “자꼬뱅주의의 결여”, 즉 “농민 소토지소유화의 좌절”은 이탈리아 자본주의의 발달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로메오에 의한 그람시 비판은 새로운 국면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것은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그 중 하나는 리소르지멘토기에 성립된 “자꼬뱅주의의 결여”라 통일정부 수립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하였는가 아니면 저해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람시와 마찬가지로 소불(A. Soboul)은 “자꼬뱅주의” 즉 농민의 토지소유화가 고전적 부르조아혁명의 핵심이며 이것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았다. 소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르크스 《자본론》 3권에 나타나는 문제제기의 틀을 되풀이하면 봉건제에서 근대자본주의로의 이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즉 첫번째는 낡은 사회경제의 전면적인 파괴, 이른바 ‘진정한 혁명의 길’을 통하여고 두번째는 새로운 자본주의사회 내부에서 낡은 생산양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즉 타협의 길을 통하여 실현된다.”¹²⁾ 그는 자꼬뱅주의가 결여된 이탈리아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반면 같은 마르크스주의 사가인 홉스봄(E.J. Hobsbawm)은 지나친 토지개혁이 자본주의 발전을 느리게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시대의 경제발전은 프랑스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역설적 존재를 내포하고 있었다.” “프랑스혁명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회의의 힘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것들이 로베스피에르의 손에 의하여 없어졌던 것이다. 프랑스 경제의 자본주의적 부분은 농민층과 소부르조아지라고 하는 확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상부구조에 불과하였다.”¹³⁾ 그렇기 때문에 그는 프랑스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인 농업과 소기업의 자본주의적 변혁은 엉금 엉금 길 정도로 그 속도가 늦추어졌다”고 보았다.

로메오와 이탈리아 산업화 시기 논쟁을 벌이게 되는 비교사학자인 거셴크론(A. Gershenkron)은 농민의 토지소유화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로메오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 “로메오가 이탈리아에서 농업혁명의 수행 실패가 이탈리아 자본주의 발전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12) A. Soboul(최갑수 역), 《현대사에서 프랑스혁명》 민석홍 역음, 《프랑스혁명사론》(까치, 1989), p.86.

13) E.J. Hobsbawm(박현채 외역), 《혁명의 시대》(한길사, 1985), p.256, 258.

려 도움을 주었다고 논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람시의 테제를 다음과 같이 計量化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딸리아에서 '자코뱅주의 결여된' 대농장은 개혁된 농민경제가 제공할 수 없었던 정도만큼 사회적 총자본의 창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¹⁴⁾

월러스틴(I. Wellerstein)도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이 영국에는 경제적 진전을, 프랑스에는 후퇴를 안겨준 요인 보았다."¹⁵⁾ 이와 같은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코뱅주의" 곧 성공한 부르조아혁명의 지표가 된다고 한 그람시와 소블의 가설은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¹⁶⁾

로메오가 제기한 문제 가운데 나머지 하나는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리소르지멘토기에 자코뱅주의의 결여가 언제, 어떻게 실현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초엽, 즉 프랑스 지배기에 실시되었던 토지개혁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나폴레옹 시대에 이딸리아는 사르데냐와 시칠리아를 제외한 전역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이딸리아 각지에서는 봉건제 폐지와 그것에 수반된 공유지 재분배, 교회토지의 매각 등이 행하여 졌는데, 소블은 이 점에 주목하여 그람시의 이론적인 틀을 심화시켰다.¹⁷⁾

소블은 영주적 제권리의 폐기, 토지 소유분포의 변화, 농민층 분해 등을 프랑스혁명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이딸리아에서는 그 모두가 불철저하게 종결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이 때 토지문제의 해결 방식이 곧 리소르지멘토를 특징짓는 토지특권계급과 부르조아지의 동맹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농민대중의 요구를 억압하는 방향에서 민족통일이 달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시론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나폴레옹 지배기에 대한 이딸리아 역사가의 연구를 촉구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빌라니(P. Villani)와 같은 남부이딸리아사 연구자가 통일 이후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 심화와 남부 농민비적 출현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남부문제'(La questione meridionale)의 기원 규명을 위한, 농촌근대화를 둘러싼 사회사와 경제사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비슷한 시기인 1960년대의 일이었다. 빌라니는 크로체에서 코르테스(N. Cortes)에 이르는 윤리적 정치사적인 성향의 연구가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많은 의문을 해명하지 못하고 남부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사회·경제사연구의 필요를 주창하였다.

14) A. Gershenkron, "Reflections on Economic Aspects of Revolutions" *Continuity in History and Other Essays* (Cambridge-Massachusetts, Harvard Univ. Press, 1968), pp.268~269. 르페브르(G. Lefevre) 역시 이 점에서는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농민은 봉건체제를 붕괴시켰다. 그러나 프랑스의 농업구조를 강화하였다"(G. Lefevre,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s paysans", *Etude sur la Révolution française*, p.257, *Ibid.*, p.265에서 재인용).

15) I. Wellerstein(성백용 옮김),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창작과 비평사, 1994), p.66.

16)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다. 민석홍교수는 르페브르의 주장에 근거하여 자코뱅주의가 부르조아혁명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기술면에서 혁명가들은 자본주의적 기업집중이 혁명 후에 달성한 진보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일반적으로 소규모생산 확대를 옹호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민주적인 혁명가들은 농촌의 소토지소유자와 독립적인 수공업자의 사회를 꿈꾸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의 중요성은 이러한 혁명가들의 의도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프랑스혁명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공공질서와 관련된 것 이외의 모든 제한을 배제하고 기업의 자유를 선언하였다는 것이며, 바로 이로 말미암아 혁명은 자본주의 길을 열었는데 이는 결코 신화가 아니다." 민석홍, <프랑스혁명에 관한 새로운 해석과 그 문제점>민석홍편, *op. cit.*, p.14.

17) A. Soboul, "Risorgimento e rivoluzione borghese: schema di una direttiva di ricerca", *Problemi dell'Unità Italia* (Roma, 1962), pp.801~816.

남부이탈리아의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를 도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부이탈리아의 停滯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남부의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였고 사회세력들간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 남부이탈리아는 이미 과거부터 반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제조건을 지니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와 같은 경제적 낙후성은 통일의 과정에서 또 통일 이후에 결정되었는가? 물론 이러한 의문은 남부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참된 남부이탈리아사를 연구하려는 자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¹⁸⁾

또한 자코뱅주의의 결여를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사이따(A. Saitta)도 프랑스혁명이 리소르지멘토에 미친 영향을 더욱 강조하면서 정치사와 사회·경제사의 연관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 시기에 관한 연구가 반봉건개혁의 전제인 봉건제와 토지문제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려는 정치집단의 의지와 이와 관련된 반봉건개혁의 성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이렇듯 본고의 연구대상인 남부이탈리아 반봉건개혁 연구는 리소르지멘토를 보는 시각의 논쟁 속에서 비로소 활성화되었다. 빌라니, 빌라리(R. Villari), 칼도라(U. Caldora), 아산떼(F. Assante), 메르자리오(P. Merzario) 등 프랑스지배기의 남부이탈리아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지만 “자코뱅주의 결여” 즉 농민 토지소유화의 좌절이 남부이탈리아에서 통일 주체와 농민 대중간의 괴리를 초래하였으며, 이것이 통일 이후 남부의 사회·경제적 정체와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총괄하면 이탈리아내 리소르지멘토사 연구는 크로체-로메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진영(성공한 부르조아혁명) 아니면 그람시-빌라니-사이따로 대표되는 민중주의를 지지하는 진영(실패한 부르조아혁명)으로 대별되어 진행되었던 것이다.

영미권의 리소르지멘토 연구자들은 사회·경제사분야보다는 주로 정치사에 관련된 연구에 치중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진영’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영미권 리소르지멘토 연구자를 대변하는 맥 스미드(D. Mack Smith)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카부르보다는 가리발디가 리소르지멘토에서 진정한 대중적인 지도자임을 규명하여, 마르크스주의와는 상관없이 그람시 진영(실패한 혁명)의 손을 들어 주었다.²⁰⁾

트레블리언(G.M. Trevelyan)의 가리발디 3부작과 맥 스미드의 영향을 받은 일련의 영미권 사가들의 연구결과도 리소르지멘토를 실패한 혁명으로 파악하였다.²¹⁾ 전반적으로 영미권 연구자는 리소

18) P. Villani, "Risultati della recente storiografia e problemi della storia del Regno di Napoli(1734-1860)", *Mezzogiorno tra riforme e rivoluzione* (Bari, Laterza, 1962), p.3.

19) A. Saitta, "Spunti per uno studio degli atteggiamenti politici e dei gruppi sociali nell'Italia giacobina e napoleonica" in *Annuario dell'Istituto storico italiano per et moderna e contemporanea*, 23-24 (Roma, 1975), pp.269~292. 이 글은 1964~65년간 *Critica storica* 誌를 통해 디아즈(F. Diaz)와 벌였던 논쟁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었다.

20) D. Mack Smith, *Garibaldi* (Milano, Lerici, 1960); *Cavour and Garibaldi, 1860: A Study in Political Conflic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5); *Italy a Modern History* (Ann Arbor, The Univ. of Michigan Press, 1959).

21) G.M. Trevelyan, *Garibaldi's Defence of the Roman Republic* (London, Longmans, 1907); Trevelyan, *Garibaldi and the Thousand* (London, Longmans, 1909); Trevelyan, *Garibaldi and the Making of Italy*

르지멘토의 애국적·민족적 신화를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부르 중심의 통일 달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들이 리소르지멘토를 실패한 혁명으로 파악하였던 것은 자유 이탈리아 정부가 궁극적으로 파시즘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과 이탈리아 민중의 열망을 실현시키지 못하였던 1차대전 이후의 역사적 경험 때문이었다.

이상에서 검토한 것처럼 리소르지멘토에 관한 연구시각은 부르조아 자본주의변혁의 틀을 전제하고, 이 틀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말하자면 자코뱅주의의 결여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리소르지멘토는 실패한 혁명이라고 보는가 하면, 정반대로 그것 때문에 성공한 혁명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은 통일 이후 남·북이탈리아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차이와 논자들이 당면하고 있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리소르지멘토가 부르조아 혁명이었다는 전제하에서, 이탈리아통일운동이 온건파 부르조아지에 의한 정치변혁이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유형과 다른 이탈리아 자본주의로의 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Ⅲ

그런데 최근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근대화를 새롭게 조망하는 수정론에 힘입어 리소르지멘토의 시각을 수정론의 입장에서 다시 구성하려는 시도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논지는 대체로 이런 것이다. 예컨대 영국과 프랑스를 정상적인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모델로 상정하는 홉스봄의 이중혁명(dual revolution)²²⁾의 틀에 의존하면, 리소르지멘토는 이탈리아적인 형태로, 즉 불철저하게 진행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정통론)은 메이어(A.J. Mayer)의 주장처럼 “20세기 초반까지 유럽 전역에 걸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면에서 ‘구제도의 연속성’을 인정하면”,²³⁾ 독일(또는 이탈리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구세력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였고 이들 전산업적 엘리트에 비하면 유럽의 모든 부르조아지는 그다지 신통찮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설득력을 상실한다. 역으로 독일부르조아지를 재해석한 블랙번(D. Blackbourn)이나 엘리(G. Eley)의 주장처럼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 체제를 자신의 이념에 따라 재조직한 부르조아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우며 따라서 ‘부상하는 새로운 중간계급’을 상정하지 않는다”²⁴⁾ 오히려 독일(또는 이탈리아)부르조아지는 유럽의 어떤 부르조아지보다 강력한 존재로 재조명될 수도 있다.²⁵⁾ 더욱이 월

(London, Longmans, 1911). A.W. Salomone, *Italy in the Giolittian Era* (Philadelphia, Univ. Pennsylvania Press, 1960); Salomone(ed.), *Italy from the Risorgimento to Fascism* (New York, Anchor Books, 1970), H. Stuart Hughes, “The aftermath of Risorgimento in four successive interpretations”, *American Historical Review*, 61 (1955).

22) 홉스봄은 1789년에서 1848년의 시기를 이중혁명의 시기라 명명하고 그 기본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789-1848년의 위대한 혁명은 ‘공업자체’의 승리가 아니라 ‘중류계급’ 또는 ‘부르조아적 자유사회’의 승리였고, ‘근대경제’ 또는 ‘근대국가’의 승리가 아니라 상호인접하여 경쟁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지역(유럽 일부와 북아메리카의 작은 부분)의 여러 경제와 국가들의 승리였던 것이다.” Hobsbawm, *op. cit.*, p.12.

23) A.J. Mayer, *The Persistence of the Old Regime. Europe to the Great War* (London, 1981).

24) G. Eley, “Liberalism, Europe and the bourgeoisie 1860-1914”, in D. Blackbourn and R. Evans(ed.), *The German Bourgeoisi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1).

25) Riall, *op. cit.*, p.7. 이처럼 기존의 이중혁명의 기준이 부정되면 부르조아지의 상이 달라진다는 해석에 대해서

러스턴(I. Wallerstein)처럼 “자본주의는 낡은 체제가 붕괴해 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 스스로 부르조아지로 변신한 토지귀족에 의해 탄생되었다²⁶⁾ 고 전제하면 리소르지멘토의 과정은 유럽 근대화의 모범적인 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리소르지멘토에 대한 수정주의 시각의 대표적인 인물은 데이비스(J.A. Davis)와 리올(L. Riall)이다.²⁷⁾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제시하는 부르조아 자본주의 변혁(정통론)에 대한 대안(수정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리소르지멘토를 부르조아혁명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주역 또는 통일의 주체는 부르조아인지 귀족인지 불분명하며 이탈리아 부르조아지는 산업부르조아지의 상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부르조아지보다는 중간신분(ceti medi), 또는 엘리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리소르지멘토를 부르조아혁명의 관점이 아닌 중간신분의 정치세력화란 관점으로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나머지 하나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소르지멘토의 시기가 자본주의로의 발전 도상에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소르지멘토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화 규정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리올에 의하면, 이탈리아 산업화는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치는 장기의 과정(연속설)이기 때문에 리소르지멘토 직전은 전근대사회, 리소르지멘토 직후는 근대사회(단절설)라는 도식의 틀에 따라 근대화를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게 된다. 여기서 수정론자들은 리소르지멘토가 혼합적인 운동, 즉 사회적인 동시에 민족적인 운동임을 의식하여, 이 근대화과정이 ‘정부형성’(state formation)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로 귀결되었다고 가정한다. 리올은 이 개념이 마르크스적인 개념이 아니라 베버적인 정부개념에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의회민주정이 아닌 그렇다고 전제정치도 아닌 ‘행정군주정’(administrative monarchy)을 근대화의 지표로 본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 엘리트간의 결합을 축으로 하는 이런 정치권력의 형태가 복고시대(1815~60)에 일반화되었음을 주목하고 복고시대는 곧 반동이고 리소르지멘토는 이것을 극복하는 진보라는 시각을 극복하라고 주문한다.²⁹⁾

이상에서 개관한 것처럼 리소르지멘토사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시된다. 하나는 정통론과 수정론의 대립에서 오는 것으로 리소르지멘토를 부르조아혁명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수정론에서는 리소르지멘토가 부르조아혁명 즉 근대화과정이었다면 그 주체는 부르조아지가 아니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리틀튼(A. Lyttelton)은 “리소르지멘토가 만약 부르조아혁명이었다면 그것을 성사시킨 것은 부르조아지가 아

는 유정희, <서평 : 독일 부르조아지의 재해석> D. Blackbourn and R. Evans(ed.), *The German Bourgeoisie: Essays on the Social History of the German Bourgeoisie: Essays on the Social History of the German Middle Class from the late Eighteenth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London and New York, Loutedge, 1991) <西洋史論>50, (1996), 참조.

26) 나종일, <윌러스틴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론>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창작과 비평사, 1992), p.154.

27) J.A. Davis, *Ottocento, Famiglia, élites e patrimoni a Napoli* (Tonino, 1988); Davis, “Remaping Italy’s path to the twenties century”, *Journal of Modern History* (1994). L. Riall, *The Italian Risorgiment*; Riall, “Elite resistance to state formation; the case of Italy”, in Fulbrook(ed.), *National Histories and European History* (London, 1993).

28) Riall, *The Italian Risorgimento*, pp.32~38.

29) *Ibid.* pp.15~22; 80~82.

니었다”³⁰⁾ 고 단언한다. 또한 로마넬리(R. Romanelli)는 “이탈리아에서 보르게시아라는 용어는 1세기 넘게 논쟁의 대상이었고” 또 “이 용어의 사용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역사적 맥락과 관련지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충고한다.³¹⁾

실제로 근대화의 주역이 귀족인지 부르조아지인지 애매한 데도 불구하고 일부 리소르지멘토 연구자들이 귀족과 부르조아지를 대립적인 관계로 상정하여 그 성격을 규정한 오류를 범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잔게리(R. Zangheri)는 볼로냐 지방의 토지소유분포 연구에서

신지주들은 영주적 토지소유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가 정신을 그 영역에 도입하였지만, 그들은 후자(구지주들)에 흡수되었으며 지대와 소유의 개념은 선험적인 것이었다. ... 복고시대 이후 볼로냐의 대지주는, 귀족이든 부르조아지든간에 근대적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시장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혁을 요구하였다. ... 한편 그들은 한결같이 토지의 분할을 반대하였으며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변형을 반대하였던 것이다.³²⁾

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역으로 구귀족이 자본주의적인 혁신에 앞장섰다는 연구가 나오므로써 그 논지의 상당 부분이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³³⁾

이와 같이 최근의 연구는 근대화(리소르지멘토)의 주체를 부르조아지로 국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이런 의미에서 리소르지멘토의 주체를 중간신분 내지 엘리트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대치하자는 수정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르조아지가 귀족과 융해되어 사실상 구별이 힘들게 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인 프랑스지배기 이후의 일이었다. 프랑스지배기 이전 남부이탈리아는 사회·경제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적인 의미에서도 봉건제가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귀족과 부르조아지는 분명히 구분되는 각각의 사회세력이었다. 프랑스지배기 이전에 법적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귀족에 비해 열악한 존재였던 부르조아지가 프랑스지배기 이후에 귀족과 융해되어 동질화되었다면, 리소르지멘토 초기의 과정은 오히려 부르조아혁명의 과정으로 파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수정론의 주장은 주로 비인체제에서 통일달성 내지는 파시즘체제 성립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지배기가 초래하였던 반봉건개혁의 실상을 간과하

30) A. Lyttelton, "The middle classes in Liberal Italy", in J.A. Davis and P. Ginsborg(ed.) *Society and Politics in the Age of Risorgimento*,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1), p.217.

31) "아마도 'Burg', 'burgus' 라는 기원에서 프랑스어의 bourgeoisie, 독일어의 Bürgentum, 스페인어의 burguesia나왔을 것이다. 영어는 이와 관련된 단어가 없는데 'middle class' 를 사용하든가 제한된 의미에서 프랑스의 부르조아지를 본따왔다. 그 용어는 사회과학적인 용어도 아닐 뿐더러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용어이고 역사를 통해 그 의미가 변하였다." (R. Romanelli, "Political Debate, Social History, and the Italian Borghesia: Changing Perspective in the Historical Research", *Journal of Modern History* 63 (1991) p.717).

32) R. Zangheri, *La proprietà terriera e le origini del Risorgimento nel Bolognese* vol. I (Bologna, Zanicheli, 1961), p.151.

33) 반띠(A.M. Banti)는 1900년대 귀족출신의 대지주가 기업가적 경영을 추구한 예를 제시하였다(A.M. Banti, "Strategie matrimoniali e stratificazione nobiliare: Il caso di Piacenza(XIX secolo)", *Quadri storici* 64 (1987), pp.153~173). 기타 리카솔리(Ricasoli)가문, 카부르(Cavour)가문, 로시(Rossi)가문 피아트 자동차를 창립한 아그넬리(Agnelli)가문 등 귀족출신의 자본가 출현의 사례에서 검증되듯이 귀족이 곧 비자본주의적이라는 도식은 오류임이 입증된 셈이다. Romanelli, *op. cit.*, pp.732~736; Riall, *op. cit.*, pp.34~36.

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나머지 하나는 정통론 내부의 논쟁에 관련된 것이다. 리소르지멘토가 농민의 토지소유화를 결여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혹은 그것을 저해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람시와 소블이 농민토지소유화는 곧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단정한 것이 오류지만, “자꼬뱅주의의 결여”가 곧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단정짓는 것도 오류라고 생각한다. 농업이 산업화 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기초적인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급속히 늘어나는 비농업 인구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과 생산력을 높이는 것, 나머지 두 가지는 보다 근대적인 경제부분에 이용될 자본의 축적을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구 사이에 충분히 큰 시장을 창출하는 것과 농산물의 수출을 통한 자본의 축적이 그것이다.³⁴⁾

그런데 리소르지멘토사에서 자꼬뱅주의의 결여는 ‘보다 근대적인 경제부분에 이용될 자본축적을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 하는 문제에만 국한하여 검토되어 왔다. 로메오와 거웬크론간의 산업화 시기 논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로메오는 통일 이후 경제정책의 유형을 진정한 ‘도약’에 선행하는 초기 자본주의 국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옹호하였다. 도약단계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원시적 축적’ 필수 기산산업의 건설이다. 그리하여 그는 통일 이후 정부가 추진하였던 경제정책, 즉 한편으로는 확고한 세금의 징수와 또 다른 한편으로 공공사업 특히 철도건설 등이 위의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옹호하였다.³⁵⁾

이에 대해 거웬크론은 통일 정부의 정책이 진정한 산업생산의 발달을 고무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토지소유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1866~1880년간 자본의 규모가 정태적이었다는 자료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단언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 기간에 시작되었던 경제변화가 무엇이든간에 전반적인 인상은 전체 국민경제에 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었다.”³⁶⁾ 대신 거웬크론은 이탈리아의 산업화가 1895~96년에 이루어졌고, 이탈리아 은행의 파산에 따른 독일계 은행의 진출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로메오의 그람시 비판, 즉 자꼬뱅주의의 결여가 곧 자본주의 발달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에서는 로메오와 같은 견해를 보였으나 산업화의 시기에 대해서는 로메오와 의견을 달리 하였다. 그는 로메오가 산업화 시기를 1880년대에서 찾으려는 것은 통일 직후의 자유주의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라고 비판하였다.³⁷⁾

이상에서 살펴본 로메오와 거웬크론의 산업화 시기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이 산업화 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기초적인 역할 가운데 첫번째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프랑스지배기 이후에 귀족과 부르조아지는 사실상 하나의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귀족 소유의 토지와 부르조아지 소유의 토지에서 토지경영이 다르다고 전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통일운동의 주체인 이 용해

34) Hobsbawm, *op. cit.*, p.51.

35) Romeo, *Breve storia della grande industria in Italia 1861-1961* (Milano, Arnoldo Modadori editori, 1988).

36) Procacci, *op. cit.*, p.402.

37) 자세한 논쟁은 Gerchenkron, “Industrial Development of Italy: A Debate with Rosario Romeo”, in *Continuity in History and other Essays*, pp.98~128 참조.

된 신지주층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몰두하였는지의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로메오가 관심을 둔 근대공업에 이용될 농업부문에서의 자본축적이라는 문제 이외에 농업의 생산과 생산력을 늘이기 위한 시도 여부가 검증되어야 한다.

IV

프랑스혁명은 남부이탈리아의 정치적·사회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에는 왕조의 교체, 봉건제폐지, 행정·조세제도의 개혁, 토지개혁과 같은 변화가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1734년 이래 보르보네왕조하에 있었던 남부이탈리아에는 1799년 프랑스군의 나폴리시 진격을 배경으로 자코비노혁명이 발생하여 파르테노페아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 공화국은 5개월 정도 존속하다가 곧 바로 보르보네왕조의 나폴리왕국으로 흡수되었으며, 나폴레옹체제의 확립과 함께 1806년에서 1815년까지 나폴레옹의 친·인척인 조셉 보나파르트(Giuseppe Bonaparte)와 조아키노 무라(Gioacchino Murat)를 국왕으로 하는 나폴리왕국으로 대체되었다. 나폴레옹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시칠리아로 망명했던 보르보네왕조가 복귀하였다. 1820년에는 카르보네리아結社(carboneria)를 주축으로 하는 혁명이 보르보네왕조의 복고정책에 대항하여 발생하였다. 이 나폴리혁명은 국내에서는 성공하였지만 오스트리아 군대의 개입에 의하여 진압받았다.

이상은 프랑스혁명의 영향하에 1799년부터 1820년까지 진행되었던 남부이탈리아 정세의 동향이었는데, 이 과정은 토지부르조아지의 정치세력화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자코비노혁명은 지식인이 중심이 된 혁명적 부르조아지에 의한 반봉건혁명이었지만, 농민층이 반혁명에 가담하여 실패하였다. 이 때문에 반봉건개혁은 나폴레옹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지연되었으며, 이 때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외세에 의한 개혁은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에서 봉건영주층의 저항에 타협적이었고 농민층의 요구에는 억압적인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불철저한 토지개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토지부르조아지는 1799년 자코비노혁명의 실패를 거울삼아 농민운동이 반부르조아적 측면에서 조직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이 점에서 카르보네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말하자면 토지부르조아지는 농민이 자율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하면서 또 구봉건영주층과의 타협을 시도하면서 나폴레옹체제하에서 자기의 요구를 실현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구제복고가 발생하여 나폴레옹체제하에서 얻었던 권리가 제약을 받자, 토지부르조아지는 카르보네리아에 의존하여 1820년혁명을 일으킨다.

이처럼 자코비노혁명에서 카르보네리아혁명까지의 역사는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남부이탈리아 토지부르조아지가 반봉건개혁에 의하여 봉건귀족의 특권을 탈취하면서 동시에 농민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지배권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때의 토지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단순히 이후 이탈리아통일운동의 전개를 조건지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남부 문제의 원인이 된다. 본고의 연구범위는 이상과 같은 정치적 동향을 포함하는 20여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1806년에서 1815년까지 프랑스지배기의 반봉건개혁을 주된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남부이탈리아(Mezzogiorno, Italia meridionale)가 지칭하는 영역은 오늘날 통용되는 남부이탈리아의 그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 오늘날 남부이탈리아는 20개의 道(provincia) 가운데 반도의 남부에 해당하는 캄파니아, 아브루쥬, 몰리제, 풀리아, 바실리카타, 칼라브리아 등 6개 도 및 2개의 섬 행정구역인 사르데냐道와 시칠리아道を 포함한 8개의 道로 구성된 지역을 지칭한다.³⁸⁾

그러나 통일 이전 시기를 다루고 있는 본고의 '남부이탈리아'는 사르데냐 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통일 이전 사르데냐 섬은 북부의 피에몬테(Piemonte)와 같이 편제되어 사르데냐왕국 또는 피에몬테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시칠리아 섬은 반도의 남부와 동일 행정단위에 속했으나 본토와는 서로 다른 역사와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경선의 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본토와 분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고의 남부이탈리아는 1806년에서 1815년까지 시칠리아를 제외한 반도의 남부 즉 나폴리왕국(Il Regno di Napoli)에 해당되며, 그 이전과 이후에는 시칠리아도 포함되는 영역인 나폴리·시칠리아왕국(Il Regno delle Due Sicilie)³⁹⁾에 해당된다(〈지도 참조〉).

필자가 남부이탈리아를 연구대상으로 국한한 것은 통일 이전 이탈리아가 10여 개의 크고 작은 지방 국가로 분리되어 있어, 다른 지방은 사실상 별개의 국가였기 때문이다.⁴⁰⁾ 또한 통일 이후인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부이탈리아는 공업 중심적인 부유한 북부에 비하면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농업 중심지역으로 뚜렷히 구별되며,⁴¹⁾ 이것이 현대 이탈리아 정치에서 최대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⁴²⁾ 보시(U. Bossi)가 이끄는 북부동맹(Lega di Nord)은 1994년 이래 북부만의 독립을 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부패하고 못사는 남부와 유복한 북부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부이탈리아는 통일의 문제점이 북부이탈리아보다 훨씬 잘 부각되는 지역이다.

본 연구를 위해 이용된 기본 자료는 《토지대장》, 1806년 8월 2일자 〈봉건제폐지령〉을 비롯한 각

38) 1976년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20개 道 가운데 12개 道인 피에몬테, 발레 다오스파, 리구리아, 롬바르디아,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베네토,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토스카나, 움브리아, 마르케, 라지오道を 제외한 남부이탈리아는 면적 123,116km², 인구 19,843,265명으로 전체 면적 301,243km²의 약 41%, 전체 인구 5,600만 명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Atlante generale illustrato Zanichelli*, a cura di D. Insolera e G.M. Zaniboni (Bologna, Nicola Zanichelli Editore, 1981), pp.2~17.

39) 나폴리·시칠리아왕국은 나폴리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의 남부와 팔레르모를 중심으로 하는 시칠리아 섬이 합쳐진 정치단위였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두개의 시칠리아왕국' 또는 '兩시칠리아왕국'으로 직역하지 않고 나폴리·시칠리아왕국으로 국역하였다.

40) 통일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의 이탈리아는 2개의 왕국(스페인 보르보네왕조하의 나폴리·시칠리아왕국과 사보아왕조하의 사르데냐왕국), 3개의 공화국(베네치아, 제노바, 루카), 5개의 공국(밀라노, 토스카나, 파르마, 피아첸차, 모데나), 교황국가 등 11개의 정치단위로 조각나 있었다. 그 중 반 이상이 비이탈리아계의 왕조에 의해 지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왕국이나 공국 안에서도 이질적인 요소가 많았다. 말하자면, 이탈리아는 알프스 지역에서 시칠리아까지 이르는 전지역에 단일의 통치권력이 존재한 선례가 고대로마 이후로는 없었고 다양한 외세의 구속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베테르니히가 적절히 표현했듯이 '이탈리아'라는 말은 단지 "지리적 표현"에 불과하였다.

41) 레비(C. Levi)의 《예수는 에보리에서 멈추었다》(*Cristo si è fermato a Eboli* (Torino, Einaudi, 1990))는 에보리以南에서는 기독교 교회의 救濟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버림받은 땅, 남부이탈리아의 실정을 고발한 대표적 소설이다.

42) 이탈리아 남·북의 사회·경제적 차이, 지리적 분리, 기질적 차이의 시작은 고대 로마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통일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통일은 북부를 중심으로 타지역을 흡수하는 형태로 성립되었으며, 통일 정부의 요직은 북부인이 독점하였고 남부의 회생을 바탕으로 북부의 산업화가 비약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종 《법령집》, 《이탈리아헌법 자료집》,⁴³⁾ 《남부이탈리아 근·현대사 사료집》⁴⁴⁾ 이었다. 이 가운데 《토지대장》과 《남부이탈리아 근·현대사 사료집》이 특히 중점적으로 이용되었다. 리소르지멘토기에 관련된 토지대장은 크게 세 종류로 대별된다. 18세기 보르보네왕조하에 작성된 것, 19세기 초 프랑스지배기에 작성된 것, 그리고 통일 직후인 19세기 말에 작성된 것이 있다. 본고의 연구 시기가 프랑스지배기이기 때문에 18세기 중엽의 토지대장과 19세기 초엽의 토지대장이 모두 구비된 촌락공동체를 대상으로 토지소유분포의 변화를 비교, 검토하였다.

남부이탈리아사 사료는 나폴리, 살레르노를 비롯한 남부이탈리아 지방 중심지에 분산되어 보존되고 있다. 더욱이 본고 연구와 관련된 사료는 대부분이 필사본이거나 표준 이탈리아어가 제정되기 이전의 지방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료를 활용함에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남부이탈리아 근·현대사 사료집》은 지방의 문서보관소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해독상의 장애를 해소시켜 주었다. 이 《사료집》은 스페인지배기에서 이탈리아가 통일되기까지에 관련된 각종 사료를 현대적인 활자로 편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기별 주요 주제에 관한 해제와 대표적인 논저를 발췌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V

프랑스지배기가 시작될 때 남부이탈리아는 봉건적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⁴⁵⁾ 18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남부이탈리아에서는 ‘봉토’의 원초적 의미는 없어졌으나 이에 관련된 봉건적 권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중세의 신분제적 계서제의 유제 또한 잔존하였다. 그리하여 국왕의 직할하에 들어갔던 촌락공동체는 전체의 20%에 불과했고 나머지 80%는 귀족의 행정권, 조세권 관할하에 있었다. 영주적 세권리는 봉토를 매개로 하여 수확농산물의 20%까지 징수하였던 십일세, 기타 노동 징발권, 제분, 제빵, 착유 등에 이르는 각종 시설독점권(*diritti proibitivi*)에 이르기까지 남아있었다. 이는 사회·경제사적 의미의 영주권뿐만 아니라 법제사적 의미의 封建制度 강하게 남아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토지는 국왕과 영주의 수봉관계, 영주와 농민 사이의 공납적 토지보유 관계, 농민 상호간의 공동체적 토지 이용관계 등이 중층적인 관계로 혼합되어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16세기 이래 토지사유화의 진전은 영주, 토지부르조아지, 농민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다.

18세기에는 앞으로 ‘부르조아지’로 분류될 사회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법률가, 의사, 상인, 제조업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법률가와 토지소유자가 많았다. 상인과 제조업자 출신 부르조아지의 출현이 미미하였던 것은 남부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산업인 모직업이나 견직업이 17세기 중엽을 전환점으로 급락하였기 때문이다. 법률가 출신의 부르조아지가 많았던 것은 왕국

43) *Le costituzione italiane*, a cura di A. Aquarone, M. d'Addio, G. Negri (Milano, Edizioni di comunit Milano, 1958).

44) *Storia documenti. Il Mezzogiorno nell'età moderna e contemporanea* (Napoli, Guida Editori, 1974), a cura di A. Lepre - P. Villani. 이하 S.D.로 줄임.

45) ‘봉건제’라는 용어의 애매함 때문에 어떤 사회가 봉건사회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와는 다르게 리소르지멘토의 수정론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의 봉건법체계가 복잡했던 사정으로 인해 봉건영주·농촌공동체·왕권·교회 등의 세세력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⁴⁶⁾ 그것을 처리하는 법률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농촌의 토지부르조아지의 존재이다. 이러한 토지부르조아층의 대두가 남부이탈리아의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토지부르조아지는 직능별로 보면, 부유농민, 상인, 금융업자, 영주의 대리인 혹은 차지경영인, 대목축업자, 법률가, 의사, 사제, 촌락공동체의 장, 위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결국 농촌의 부유층인 이들에게는 ‘갈란뚜오미니’라고 하는 호칭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귀족의 칭호를 취득하거나 도시로 이주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토지재산의 증식에 정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활동 범위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 세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18세기에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농촌공동체 내부에서는 이미 행정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이들이 정치세력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반봉건개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2장에서는 남부이탈리아 봉건제의 특수성과 토지문제를 둘러싼 분쟁, 그리고 토지부르조아지의 부상을 다룬다.

3장에서는 근대국가 조직으로 일신하였던 봉건제폐지와 영주의 지방분권적 권리 회수가 프랑스 지배기에 실현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기존의 봉건국가는 ‘봉건영지’의 틀에 기준을 둔 국가조직이었다. ‘○○의 영지’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일 구획 안에 전체 영지가 있다는 것도, 또 영지 전체가 그 소유자에 의하여 직접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借地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점유되고 있다는 것도 아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근대국가의 특성은 영토적으로 불가분하게 통일되어 있고 국경선이 확연하게 그어진 한 지역이면서 단일의 주권당국에 의하여 단일의 행정적 법률적 제도로 통치된다는 점에 있다.⁴⁷⁾ 근대국가 조직의 탄생은 통일된 행정, 사법, 조세체제의 정비로 구체화되었고, 이 과정은 여기에 관련된 법령을 통해 검토된다.⁴⁸⁾ 이와 관련하여 신정부의 제도개혁 결과 구영주가 담당하였던 지방권력을 대신하게 되는 신관료층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례연구는 토지부르조아지가 귀족과 더불어 중앙 및 지방 관료로 등용되고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반봉건개혁이 지향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토지의 사적 소유화와 상품화,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신지주층의 출현, 농민의 임금노동자화라는 세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다.⁴⁹⁾ 역으로 생각하자면 봉건 사회에서는 이 세가지 현상이 전적으로 제약받고 있었다. 토지의 상품화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분할이나 매각을 금하고 있던 영구토지소유(manomorta), 신탁유증(fedecompresso)과 마조라스카토(maggiorascato) 등과 같은 제도의 철폐와 금지가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혁명 이후에 교회토지의 몰수와 매각, 토지개혁이 진행되었다.

46) 특히 토지문제와 관련된 訟事는 연간 1,100건에 달했고, 1806년 봉건제폐지령이 선포되었을 당시 나폴리법정에 계류 중인 토지분쟁 소송은 약 3만 건에 달했다.

47) *Legge eversiva della feudalità* (1806년 8월 2일자), 제1조와 제2조 in 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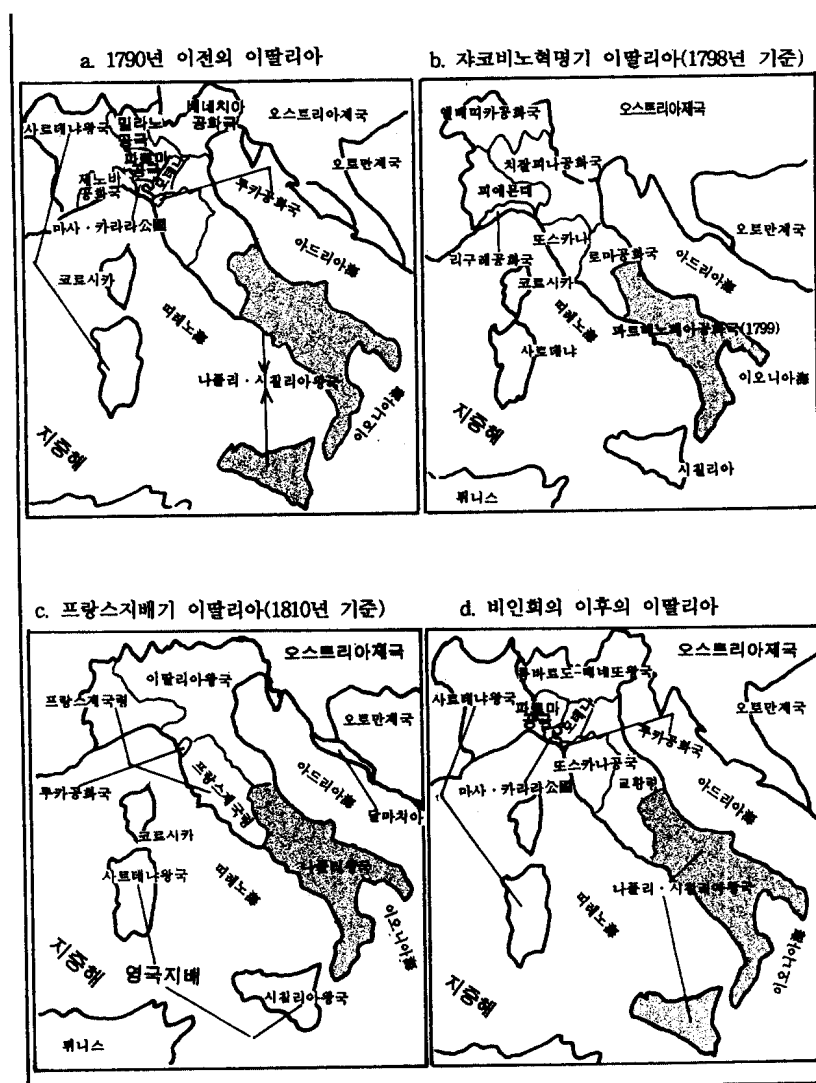
48) *Le attribuzioni del Ministero dell' Interno* (1806년 3월 6일자); *Richiamo degli arrendamenti al tesoro pubblico* (1806년 6월 26일자); *Legge eversiva della feudalità* (1806년 8월 2일자); *Legge sulla divisione ed amministarzione delle provincie del regno* (1806년 8월 8일자); *Abolizione delle vecchie imposte* (1806년 8월 8일자) in S.D.

49) Hobsbawm, *op. cit.*, p.214.

교회재산의 몰수와 처분에 대해 검토한 4장에서는 나폴리왕국 전체에서 폐쇄된 수도원 수와 몰수 재산의 규모를 제시하고, 국유화한 교회재산의 매각조건과 매입자 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14개道 가운데 프린치파또 치뜨라도의 매입자명부를 분석하고 이들이 구입한 토지 규모를 제시하여 지방 사례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특권계급과 토지부르조아지가 사실상 교회재산 몰수 및 처분의 수혜자임을 입증할 것이다.

5장은 농민의 용익권 배제와 영주의 물적 권리 배제를 수반하였던 토지개혁 과정을 검토하고, 토지개혁 이후 토지소유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제시한다. 토지개혁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구영지를 봉건영주와 촌락공동체 사이에 분할하고, 다음으로 촌락공동체 소유토지를 주민들

<지도> 이탈리아 정치지도의 변화(- 부분이 남부이탈리아)



사이에 할당하여 유상매각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중세적인 권리와 규제 및 이용권에서 자유로워진 토지를 새로이 획득한 신지주층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기업가적인 경영을 추구하였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가 검토될 것이다. 여기서는 프린치파또 치뜨라도, 바실리카도, 칼라브리아 치뜨라도 소재 촌락공동체의 사례를 검증하여 남부이탈리아 토지개혁의 성격을 유추하는 방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1820년에 발발한 입헌혁명기 토지부르조아지의 정치세력화 과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프랑스지배기의 봉건제폐지와 토지개혁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던 토지부르조아가 앞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긴 여정에서 농민과 이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해명되리라 기대한다. 그것은 토지부르조아지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혁명의 과정이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혁명의 과정인 것이다.

VI

남부이탈리아의 토지부르조아지는 반봉건개혁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세력화를 도모하였다. 1820년 입헌혁명은 그들이 정치세력화한 최초의 징후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프랑스지배기 이전의 반봉건개혁의 시도와 좌절의 사례를 참고하면 분명해진다.

이탈리아 구제도의 실상을 비판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18세기 나폴리의 개혁운동은 제노베시의 영향을 받았던 팔미에리, 갈란디, 필란지에리, 파가노 등 이른바 '제노베시학파'가 독자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카를로 치세 때 동용되어 나폴리왕국의 정치를 주관했고 카를로가 스페인왕으로 즉위하면서 페르디난도 4세가 미성년으로 나폴리왕위를 계승하였을 때 섭정위원(1757~67)이 된 따누치가 주도한 개혁운동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개혁 프로그램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1764년 나폴리 대기근의 경험에 자극받았던 계몽주의 개혁가들은 식량조달 체계, 곡물 구입과 계약, 농자금 융자, 올리브와 직물의 유통 등에 걸친 개혁을 논의하고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1790년대에는 영주권 폐기와 봉토 매각 등을 제기하였다. 계몽전제군주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제한된 반봉건개혁을 구상하였던 반면 계몽사상가들은 구제도의 정치·사회체제 개혁을 시도하였던 것이 18세기 개혁의 특징이다. 이 점에서 반봉건개혁에 임하였던 군주와 개혁가간에는 사회를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계몽전제군주의 힘을 빌어 자신들의 개혁 프로그램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계몽사상가들의 의도는 실현될 가능성이 적었다. 실제로 이들의 반봉건개혁 시도는 귀족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별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

군주와 제노베시학파가 공동으로 전개한 나폴리의 반봉건개혁운동은 좌절되었고, 그것은 프랑스 혁명과 그 영향을 받은 사건에 의해 혁명운동으로 대체되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개혁론자들의 협력과 의지의 대상이 군주에서 민중 내지 국민으로 바뀌었는데, 1799년 나폴리의 자코비노혁명이 그것이었다. 자코비노가 18세기 계몽개혁가들과 구별되는 점은 이들이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구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공화제를 지향하면서 이탈리아 통일을 목표로 하였다. 즉 계몽사상가들이 이탈리아 각지의 기존체제를 인정하면서 개혁을 추구하였던 반면에 이들은 이탈리아를 새로운 국가체제로 만들기 위해 공화제를 채택하였으며 국경선에 관계 없이 이탈리아통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통일을 단일 불가분의 공화제로 할 것인가, 각 공화국들의 연방제로 할 것인가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들이 이탈리아의 참된 개혁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초로 제기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자코비노혁명이 리소르지멘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1799년 나폴리 자코비노혁명에서는 부르조아지의 자각과 뚜렷한 운동의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1799년의 혁명은 나폴리의 지식인에 국한된 혁명이었고, 결국 그것은 산페디즈모운동으로 상징화되는 지방농민 및 도시민민의 반혁명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1799년 사건진압 뒤 보르보네왕조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던 103명 가운데 지식인이 52%인 54명이었던 반면에 농업 및 상업부르조아지로 분류될 수 있는 지주, 상인, 금융업자, 목축업자, 수공업자, 소상공인은 10%가 채 안되는 8명에 불과하였다.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보건대, 1799년 자코비노혁명은 야심적이고 진보적인 부르조아혁명이었지만, 현실적 기반이 약하였던 혁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면 18세기 변혁운동에서 국외자에 불과했던 '토지부르조아지'라는 독특한 존재가 리소르지멘토를 주도하게 된다. 토지사유화를 위해 200여 년간에 걸친 법정투쟁을 벌였던 에보리 토지부르조아지의 사례에서 검증한 것처럼, 프랑스지배기 이전에 토지부르조아지는 한편으로는 영주의 봉건적 권리에 대항하고 또 한편으로는 농민의 용익권을 배제하면서 지방의 사회·경제적 실력자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범위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에 국한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의 정치세력화한 집단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이들이 리소르지멘토의 주체세력으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프랑스지배기의 반봉건개혁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프랑스군 점령하에서 실현되었던 반봉건개혁에서 토지부르조아지는 16세기 이래 집요하게 추구하여 왔던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확립하였다. 우선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부르조아지는 구영주로부터 약 200만 모지아의 토지를 분리시켜 일단 촌락공동체 소유로 만든 다음, 이것을 유상매입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토지로 만들었다. 이 토지 중 70만 모지아는 농민에게 할당하였으나 몇몇 촌락공동체에서 검증한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이들 토지부르조아지의 수중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이다. 이는 전체 과세 대상 토지의 약 10%에 달하는 것이었다.

교회재산의 몰수와 처분은 징세청부권을 소유하였던 구귀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나폴리왕국 전역에 걸쳐 1,300 여개의 수도원이 폐쇄되고 약 1억 푼카또 이상의 교회재산이 국유화되었다. 이 중 약 20%(과세 대상이 된 토지의 약 2.7%)가 개인에게 매각되었다. 개인에게 유상매각된 몰수지의 65% 이상은 나폴리에 거주하였던 구귀족, 고급 행정관료 및 장군, 상층 부르조아지가 독식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토지부르조아지는 나머지 몰수지의 처분에 참여하여, 자신의 토지를 증식시킬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토지분배와 교회토지 매입이 토지부르조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강화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토지부르조아지가 정치세력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때문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의 정치세력화는 조세·행정·사법제도 개혁의 필연적인 산물인 근대적 국가 조직의 탄생에 더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군주정’ 체제로 자리잡은 근대적 국가 조직은 중앙관료인 지사, 부지사 및 지방관료인 도·군·촌락공동체위원을 새로 충원하였다. 신흥관료가 되는 조건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토지소유자였기 때문에 구귀족이 독점하였던 자리를 이제 이들 토지부르조아지가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토지부르조아지는 지방과 중앙의 관료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세력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폴레옹 체제하에서 전쟁이 일반화되었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점령지의 부담은 과중되어 갔다. 나폴리왕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폴리왕국은 전쟁의 지속에 따라 군비가 늘어난 반면에 대륙봉쇄령 결과 나타난 농산물과 견직·모직물의 수출격감으로 인하여 과중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 때문에 무라정부는 전쟁중단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미국 상선을 이용한 교역 허가를 프랑스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 요구는 묵살되었고, 농산물의 수출 활로가 막힌 토지부르조아지는 토지세를 삭감하고 인두세의 신설을 요구하여 관철시킬 만큼 성장하였다. 또한 프랑스제국과 정책상의 이견이 깊어지면서 무라정부의 고급관료와 토지부르조아지는 반나폴레옹적인 공화주의와 입헌군주정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을 목표로 하는 카르보네리아의 활동을 고무하고 강화하였던 것이다.

비인체제 이후 보르보네 정부는 반동과 진보의 중간인 아말감정책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토지부르조아지는 즉각적으로 정치변혁을 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중한 토지세의 부담이 현실화되었을 때 토지부르조아지가 요구한 것은 입헌주의였다. 1820년 입헌혁명은 바로 토지부르조아지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1820년 입헌혁명을 주도하였던 카르보네리아의 당원명부와 혁명 이후 소집되었던 국민의회 의원의 직업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20년 당시 경찰청에서 작성한 나폴리를 비롯한 12개 道에서 활동하던 2,700여 명의 카르보네리아 당원명부에 나타난 직업에는 지주가 45.4%로 가장 많았다. 또한 1820년 국민의회 72명 의원 중 지주가 33%인 24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토지부르조아지는 변혁운동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집약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입헌혁명 직후 소집되었던 의회에서는 토지생산물의 자유로운 처분과 시장으로의 직접적인 공급, 토지세의 인하 및 농업지원금의 요청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의원의 피선거권은 24 두카또 이상의 토지세를 낼 수 있는 토지소유자로 제한되었다. 이런 사실에서 1820년에는 토지부르조아지가 정치세력화한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한 것은 이렇게 정치세력화한 집단, 즉 토지부르조아지가 앞으로의 통일운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며 이들은 “자코뱅주의의 결여”, 즉 “농민의 소토지소유화 배제”를 수반하며 통일운동을 전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검증된 내용을 근거로 리소르지멘토 연구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리소르지멘토를 부르조아혁명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수정되어야 하

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수정론의 입장에 선 사가들은 리소르지멘또의 주체가 ‘중간신분’, ‘엘리트’ 그리고 ‘지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회세력이었기 때문에 리소르지멘또를 부르조아혁명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통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리소르지멘또의 주체가 온건파 부르조아지와 귀족이었고, 리소르지멘또는 이들의 타협을 통해 달성되었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들에 의하면 귀족과 부르조아의 융해된 하나의 통일주체, 즉 중간신분만이 있었으며 이들에 의한 통일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필자는 프랑스지배기 이후로 그 시기를 국한시킨다면 수정론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부이탈리아 부르조아의 정치적 위상은 프랑스지배기를 전후로 분명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수정론의 주장은 프랑스지배기 이전에는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기 힘들다.

프랑스지배기 이전의 토지부르조아지는 반영주적 투쟁과 반농민적 투쟁을 통해 자신의 토지를 사유화하는데 전념하고 있었던 존재였다. 이들이 영주권과 용익권에서 자유로운 근대적 소유권이 보장된 토지소유자가 되고 또 귀족과 융해되어 갔던 것은 프랑스지배기 이후의 일이다. 프랑스지배기에 성립된 행정군주정 체제는 귀족과 부르조아의 신분상이나 정치상의 동질화에 기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리소르지멘또 초기의 과정이 토지부르조아의 정치세력화란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리소르지멘또 전체를 중간신분의 정치세력화의 과정으로 파악하면, 프랑스지배기 이전 남부이탈리아 사회가 법제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봉건적 잔재가 강하고 잔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간과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필자는 프랑스지배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정통론의 주장이, 그 이후는 수정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수정론과 정통론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는 리소르지멘또의 결과 나타난 “자코뱅주의의 결여” 이탈리아 자본주의화를 촉진하였는가 또는 지체시켰느냐 하는 것이다. 그람시와 소블은 리소르지멘또가 “자코뱅주의”를 성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부르조아혁명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자코뱅주의가 성립된 국가는 프랑스 뿐이고 이 프랑스의 경우도 농민의 소토지소유화가 이후 프랑스 자본주의의 발전을 지체시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코뱅주의의 성립이 곧 성공적인 부르조아혁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자코뱅주의가 곧 자본주의 발전과 동일시될 수 없듯이 로메오의 주장처럼 “자코뱅주의의 결여”가 오히려 이탈리아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농업이 산업화 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기초적인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급속히 늘어나는 비농업 인구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과 생산력을 높이는 것, 두번째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구 사이에 충분히 큰 시장을 창출하는 것, 세번째는 농산물 수출을 통한 자본축적이다. 로메오가 제기한 ‘원시적 축적’이라는 문제에 관련된 두번째와 세번째 사안에 국한시켜 검토하더라도, “자코뱅주의가 결여”된 남부이탈리아에서 실현된 것은 이 중 세번째뿐이었다. 부연하자면 농민토지소유화의 좌절과 농촌에 대한 중과세가 농민의 구매력을 상실케 하였으며 이것 때문에 남부이탈리아에서는 ‘보다 근대적인 경제부분에 이용될 자본의 축적을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즉 농업인구 사이에 충분히 큰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원시적 축적' 문제 이외에 토지소유화가 좌절된 농민이 토지에서 뿌리 채 뽑혀 자유
임노동자의 창출로 이어졌는가 하는 문제와 농업의 생산과 생산력을 높이는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
야 한다. 봉건제폐지로 인해 사적 소유권이 확립된 신지주층이 합리적이고 기업가적인 경영방식으
로 나아갔는지는 필자가 앞으로 해명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적어도 본고에서 고찰한 바로는 사적
소유권이 확립된 라티퐁디움식 대토지소유지에서 분익소작과 날품팔이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경영
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로의 출구가 막힌 농촌빈민이 선택할 길은 농민비적 이외는
없었으며 이런 이유로 남부이탈리아에서는 19세기 말까지 농민비적 출현이 일상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판단하건대 자꼬뱅주의가 결여된 남부이탈리아 농촌경제가 자본주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